

마쓰다 신지로 기념비

19 세기에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의 우두머리였던 마쓰다 신지로를 칭송하는 기념비가 구 초등학교 터에 있는 그의 무덤 옆에 서 있습니다. 1857 년, 규슈의 사쓰마번이 이 섬에서 강제노동으로 제당업을 시작했을 때, 신지로와 두 사람의 동료는 섬 주민들이 억지로 일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생산을 방해하는 계획의 주모자로서 수감되어 나무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. 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신지로는 중상을 입었지만, 이 섬의 강제노동을 끝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신지로는 이 지역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.

신지로는 또한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에 입항하는 다랑어 어선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세수입으로 이 섬을 정비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.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 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숲의 조성과 그 외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. 신지로의 업적은 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.